

##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전홍용 편집:양재용

##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장애입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애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가 복음을 막았고, 많은 교회는 이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의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해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장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를 넘어 영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된 우리 가정

다음 주일(5월 2일) 제4차 성찬식(1~5부 예배)

어린이 · 어버이주일(2 · 3부 가족연합예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위태로운 가정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와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들 또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롬 3:23).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만이 위기에 처한 가정의 유일한 대안입니다(골 1:20). 이와 같은 사실을 다음 주일, 2010년 제4차 성찬식과 함께 드러질 어린이 · 어버이주일(2 · 3부 가족연합예배)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 1. 확실성

#### 2. 그가 오실 표적

#### 3. 엄숙하게 오실 것이다

'엄숙하게 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엄숙의 의미는 문이 닫히는 것(마태복음 25:10~11), 모두 멸망한다는 것(마태복음 24:38~39),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누가복음 12:20)이다. 문이 닫혀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자.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부와 명예,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악한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기회는 지금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께로 달려 나가자.

#### 4. 갑자기 오실 것이다

많은 이단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다. 지구의 한 편에서는 낮에, 또 다른 편에서는 밤에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마 24:40~41).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42).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마 24:27).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막 13:36).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절대로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양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엄숙하게 오실 것이며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가증스러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복음  
The Gospel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②



오늘, 찬양예배 시 제2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릴움)



충현 음악 아카데미 개설 안내, 본지 4면

5월

교회일정

2일 (주) 제4차 성찬식, 어린이 · 어버이주일

12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3일 (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 TIME OF 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33) 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34) I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so that you will not come together for judgment. The remaining matters I will arrange when I come.***

***(1 Corinthians 11:23-34)***

Churches around the world differ in their frequency of Communion. Some churches gather weekly, monthly, quarterly, bi-yearly, and some churches just once a year. Different denominations meet for Communion at different times. The Bible does not have a time requirement for Communion, nor does it have specific details concerning how it is to be served. Some churches have the congregation line up to go to the altar to receive the bread and cup, while others have ushers serve the bread and cup to a seated congregation. Some churches serve each element separately, while others serve the bread and cup together. Some churches only allow baptized believers to partake, while in other churches you need only to be a believer. Some churches partake of the bread and cup together, while others partake individually. No matter the frequency or style of service, Communion is not a means for salvation. Only faith in Christ saves! What then are the purposes of Communion?

Communion is a time for remembering the suffering death of Jesus Christ. Jesus told His disciples at His Table.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1 Cor. 11:24-25). Remembering the suffering death of Jesus Christ applies both to the bread and the cup, symbols of His body and blood. Can you imagine how much the cross means to the Lord? In the Old Testament, the passover lamb saved Israel from death. In the New Testament, John the Baptist said upon seeing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The words to a new song in heaven say. "Worthy 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Rev. 5:9). Communion time reminds us of this. So, why is it so important to remember Christ's suffering? Jesus suffered for our sins. Sin is a very serious matter, and in order to experience God's great love and grace we need to remember that it is only Jesus' blood that cleanses our sins. Please take the time at this Communion to really think about Christ's suffering and death.

Communion is a time for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1 Cor. 11:26). Communion is a time of reflecting on Christ's cross and His coming again. We need to remember His groaning and His glory. Each Communion service brings us nearer to Christ's returning, and it should be a purifying experience.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 Jn. 3:3). Looking back to the price paid for our sin and looking forward to our sinless Jesus Christ's return are integral parts of partaking in Communion. Christ may return while some church is having their Communion service. Would you be ready if He returns today? Would you feel confident or ashamed at His coming?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1 Jn. 2:28). Please take the time at this Communion to really think about Christ's return.

Communion is a time for self examination and confession of sins.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1 Cor. 11:28-30). Everyone who takes Communion needs to sincerely judge their hearts. Please do not ignore this important task. Examine yourself in light of the cross, in the light of Jesus Christ's return. It is dangerous to be careless about Communion, for some have been stricken with illness and some have died. Understand that self examination and confession of sin prevent chastening. Self judgment prevents God's judgment.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1 Cor. 11:31). Confession brings forgivenes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Proper preparation for Communion necessitates the confession of your sins. Please take the time at this Communion to really think about your wrongdoings, and ask God to forgive you.

My dear friends, Communion time keeps our vision of the cross clear, it keeps our expectations of Christ fresh, and it keeps our hearts sensitive to personal sins. Are you now ready to come and partake? 卐



# 성찬의 시간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25)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26)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리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고린도전서 11:23~34)



김성판 목사

세계의 교회들은 저마다 성찬식 횡수가 다릅니다. 매주, 매월, 분기별, 일 년에 두 번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일 년에 단 한 번만 성찬식을 행합니다. 교파마다 성찬식 횡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찬식 횡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회중들이 줄을 서서 단상 앞으로 나아가 떡과 잔을 받고, 어떤 교회들은 안내자들을 통해 앉아 있는 회중들에게 떡과 잔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떡과 잔을 따로따로 배식하고, 어떤 교회들은 떡과 잔을 한꺼번에 배식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례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교회들은 신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떡과 잔을 다 함께 나누고, 어떤 교회들은 개별적으로 나눕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찬식의 횡수가 방법과는 상관없이 성찬식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 11:24~2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떡과 잔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우리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골 5:9). 성찬식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재림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을 목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매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우리의 죄를 위해 치러진 대가를 돌아보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 오실 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를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자녀들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8). 오늘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다

성찬식은 죄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 11:28~30).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성찬식을 경솔하게 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징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징계를 막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31).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성찬식을 합당하게 준비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밝게 해 줍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 주며,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



## 가든 샵

어려운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②  
(시편 121:1~2)

그분의 오심에 눈을 들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정  
조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  
였다. "일찍 성산에는 정조  
가 있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산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  
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  
늘의 관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 21:25~26).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눅  
21:27).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  
니라 하시더라"(눅 21:28). 그런데 악한 영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방  
해한다. 현실의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  
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  
다. 배드로드도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근  
심과 환난은 '잠깐'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벧전 1:6). 길이 같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  
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  
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  
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벧전 1:7). 천자를 지으신 주님을 믿는가? 그렇다  
면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예수님이 답이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님, 곧 주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말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복  
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 3:20~21). 현실의 어려움은 잠깐에 불과하다.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여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매순간 솟아나는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고전 15:31), 십자가로 자신을 채(고전 9:27) 주님께만 순종하라. 아멘.

## 교역자 간증

##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섭니다. 은혜와 법, 오온편과 원편, 곧 양과  
염소의 자리로 나누어 섭니다.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저야 하는 그 비참한 상  
황에서 인자의 영광과 자신의 보좌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두 편 of 자리  
를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큰 건물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  
는 자들, 자신들의 외로움과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 죽이  
기를 의논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메시아를 파는 자들이 서 있  
는 자리와 양육을 예수님에게 부여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한 여  
인이 선 자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자리에 선 자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 안에 서는 그 자리는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오온편에 서는  
그 자리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영광과는 관계가 없  
어 보입니다. 오히려 원편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 임을 가진 자리, 합리적인 자리, 영광으로 가득한  
그 자리, 사람들의 인정이 가득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저는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한 여인의 자  
리는 멀리 하고 싶은 자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날마다 키스하면서 내 생각  
과 계산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예수입니까? 주여, 저는 주  
님의 실과 띠를 먹고 마시면서 당신을 파는 자라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  
입니까? "저는 도저히 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박지은(목사, 중동부)

## 충천 음악 아카데미 개설편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뢰라" (시 33:2~3)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플루트, 물속에서 나는 듯 신비한 클라리넷, 재지는 익살꾼 오보에,  
심장을 울리는 혼, 하늘을 진동하듯 임한 트럼펫, 부드러운 동시에 화려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연와 울림소리 이외에도 많은 악기와 소리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리입니다. 이 소  
리를 직접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악  
기를 배울 수 있는 충천 음악 아카데미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현악을 통해 나  
남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탁월한 강  
사를 통해서 악기를 배워 각 악장대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각 교회악회에서 찬양의 소리가 넘  
쳐나길 기대합니다. 충천 음악 아카데미는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 양성의 통로  
가 될 것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취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의 많은 지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강 의 시 간 표 \*문의 552-8200(내선 259)/010-9004-9140

| 과 목          | 일 시                            | 강 사                      |
|--------------|--------------------------------|--------------------------|
| 플루트          | 초급(토 14:00)                    | 김유경                      |
|              | 중급(토 15:00)                    |                          |
|              | 고급(토 16:00)                    |                          |
| 오보에          | 토(13:00)                       | 김영신                      |
|              | 토(17:30)                       |                          |
| 클라리넷         | 토(13:00)                       | 이형민                      |
|              | 토(17:30)                       |                          |
| 혼            | 토(13:00)                       | 조은정                      |
|              | 토(17:30)                       |                          |
| 트럼펫          | 초급(토 17:00)                    | 노진아                      |
|              | 중급(토 18:00)                    |                          |
|              | 고급(토 19:00)                    |                          |
| 트럼본          | 토(13:00~16:00)                 | 이영규                      |
| 튜 바          | 토(13:00)                       | 김도형                      |
|              | 토(17:30)                       |                          |
| 바이올린         | 매일                             | 장연희<br>이혜숙<br>이수아<br>김소현 |
| 비올라          | 토                              | 김혜진                      |
| 첼로           | 화·목                            | 이화영                      |
| 유아반(바이올린/첼로) | 화·목 15:20                      | 이혜숙<br>이화영               |
|              | (미취학생-초등1학년)<br>(주 2회, 30분 수업) |                          |

\*장소는 주후 공지

\*모든 수업은 주 1회(유아반 제외)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 변경 가능

\*수강을 원하는 악기는 각자준비(튜바 제외)

## 기쁨이 넘치는 이유

“그러즉 한 사람이 신히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 4:37~38). 비행기 2시간 지연, 교통편 문제로 공항에서 노숙할 뻔한 일, 재정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영육 간의 괴로. 5년 만의 선교는 이렇게 힘들게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3차와 4차 심사에서 재심을 받으면서 약간의 지치고 실망해 있던 차에 이런 어려움들은 저에게 말 못할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못마땅해서 벌 주시나?’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끝난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제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선교 가기 전부터 “이번 선교를 제가 아닌 오직 주님이 하소서”기도드렸던 것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저도 모르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전 못해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유독 생각나는 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던 한 여인과 불교를 믿는 다며 자신의 신에게 절을 하던 어눌한 한 할아버지. 언뜻보면 너무나 다른 영혼들이지만 주님은 그 두 영혼을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한국어로 기도했을 때, 그 두 영혼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그들이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만났지만, 많은 것을 알려 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온 제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였고, 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를 쫓아 오는 자로 쫓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노하은(대학부)

##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아침 일찍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찾아 나섰으나 가도 가도 동네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찬양을 부르며 성령님만을 의지했다. 갑자기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여 좁은 골목 길을 따라 들어가자 짐짓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었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강변 팔자락에는 다 넓어빠진 나무로 열기 싫기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집 밑으로 시궁창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는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녔다.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시궁창에 빠질 것만 같아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는 동네마다 옮겨 다니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 열대 지방의 높은 기온으로 몸은 온통 땀으로 젖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밟고 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전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김애자(집사, 11교구)

## 지금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바라보며  
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예쁜 것 있으면 두 개 사서  
함께 나누어 갖고 싶은 것 말예요

아... 거기요...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고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싶은  
그것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웃 선교지에 꼭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네요

망설이며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을 비웃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  
얼마나 어려운지  
내용을 것 없는 우리들  
그것조차 주님은 받으시지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마지막 날

신작로를 끼고 있는

자그마한 집

알마당에서였어요

순진 무구한 어린 아이들과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눈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맨 마지막 날에...

김명숙(집사, 7교구)

영혼 구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주일 4시 기도회로 오세요!  
갈릴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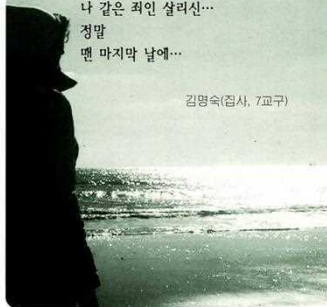
주일 4시 기도회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4월 26일(월) ~ 5월 6일(목) | 24교구 1팀 | 김금숙 |
| 4월 30일(금) ~ 5월 8일(목) | 4교구 1팀  | 신동수 |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4월 15일(월) ~ 4월 23일(금) | 6교구 1팀 | 김정배 |





# 사랑밖에 가득한 '십자가 사랑'

♥ 지난 18일 충현복지관 알. 사랑부 주보를 나누어 주는 손길에 분주하다. 98년부터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이동원 성도, 11시에 있는 사랑부 예배를 위해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산 집을 나선다. 이동원 성도는 올해 34살인데, 사랑부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온 가족이 사랑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한시간전인데도 성도 한 명 한 명을 맞이하면서 그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무엇이 그의 얼굴을 미소짓게 만들었을까. 사랑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

♥ 김중국 장로(사랑부장)는 "사랑부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들이 오랫동안 봉사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것"이라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부둥켜안고 기도하는 모습은 무척 은혜롭다"고 덧붙인다. 예배때쯤은 10여분 정도도 짧다. 신입반을 제외

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와 장애 정도, 교회에 나온 시간을 뛰어 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부를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인 공과공부를 마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르르 분당 쪽을 향해 나아간다. 바로 오늘 오후 5시, 찬양예배 때 헌신할 특송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에게 사랑부를 알리는 작은 찬양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이다.



♥ 누가 구약의 말씀(레 21장)을 잘못 빗대어 읊는 자들이 예배에 나올 수 없다고 하였는가?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에 의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부의 발걸음과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취재 | 오보남 기자 사진 | 박희호 기자



♥ 사랑부가 생긴 지 올해로 22주년째. 충현복지관에 등지를 튼 것은 지난 2000년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의 영아부 자리인 제1교육관 1층에서 현재의 충현복지관으로 예배실을 옮긴 이유는 더 많은 장애인에 교회 초입에서 쉽게 드나들도록 하자는 배려에서였다. 몇 해 전부터는 사랑부 전임목사도 배치되었다. 정신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체장애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점차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셈이다.

♥ 복지관 지하층에 마련된 예배실은 선생님들 포함해 사랑부식구들 160여명이 예배드리기에 무척 안락해 보인다.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 선생님 7분이 울음을 곁들이면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기차에게도 여자와 예배드리라고 손짓하는 듯 느껴졌다.



만 각과 믿음, 소망, 사랑)에서는 교회에서 제작된 교재를 가지고 수준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도 사랑부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특성에 맞춰 쉽고 단순한 복음 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신입식 목사(사랑부지도)는 "사랑부 식구들은 참 순수한 마음 발을 가지고 있다"면서 "복음 안에서 만나 되는 사랑부를 만들기 위해 교재연구와 예배에 특별히 기도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재 사랑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사랑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2반 주역옥(54세) 성도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적은 믿음 1반에 참송자 임성목, 김민호, 김기훈(16세) 학생, 지적장애 2급인 아리따운 최화경 자매(24세)와 정신장애 3



급의 윤원섭 형제(33세) 모두 사랑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 "지옥이었나? 아~ 헛갈려. 천국에 가"라고 말한 최화경 자매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여동생 2명을 모두 전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입반인 윤원섭 형제도 현재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정식 직원이 되면, 식당 동료들에게 가장 먼

**Tip. 장애인 주일이란?**

유엔의 세계 장애인 연(1981년)의 공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날이 아닌 국민의 날임을 촉구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지할 목적으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들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9년에는 정부 의 결정이내로 되었다. 한국의 공교회 장애인들의 법정날로 선포한 것은 1989년부터이고 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인 주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제41회 총회 결정)하였다.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호칭(용어) 사용하기

| 잘못된 표현       | 올바른 표현                       |
|--------------|------------------------------|
| 병신, 불구자, 장애인 | ▶ 장애인                        |
| 장님, 봉사, 소경   | ▶ 맹인 (시각장애인)<br>▶ 보지 못하는 사람  |
| 귀머거리, 병어리    | ▶ 농아인(청각장애인)<br>▶ 듣지 못하는 사람  |
| 정신병자, 정신질환   | ▶ 정신장애인                      |
| 정신박약, 저능아    | ▶ 지적장애인                      |
| 절름발이, 앉은뱅이   | ▶ 지체장애인(하지장애)<br>▶ 걸지 못하는 사람 |
| 광주, 금사       | ▶ 청추장애인                      |
| 난쟁이          | ▶ 키 작은 사람                    |
| 문둥병자         | ▶ 나병환자(한센병)                  |



♥ 예배소서는 다 부서져 거의 읍사하다. 예배 전 찬양과 주기도문, 헌금과 말씀, 찬양... 그 중 시선을 잡아 끄는 헌금송을 부르던 솔리스트 복명숙 학생. 발성이 클렉시하고 발음이 또박또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찬양은 마음 한 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위원이 10여 명 정도인데 그들을 불러주고 함께 단으로 나아가는 선생님도 10여 명이나 됐다. 대부분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사랑부의 특성상 교사들의 도움이 더욱 각별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일 년도 쉬지 않고 봉사와 열매 교사도 있었다.





## 심자의 길 / 새가족



## 새가족 등록실

한 글자씩  
성경을 배우며

새가족 등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 한 분이 두 명의 영재에게 '새가족성경통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영재들은 대학에서 무역과 관광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이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중국유학생들을 대해서 담당 선생님과 몇 마디 나누었다.

이 영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주세요. 이 친구들은 중국유학생이며 현재 성남에 있는 한 대학에서 무역학과 관광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잘 하지 못하구요.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선교 팀원 중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함께 학교 전도를 해 보라고 하면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중에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새가족 등록실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교회에 함께 나온 6명의 학생들 중 4명은 대학부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아라비이트로 인해 토요일 대학부 출석이 어려운 학생 2명은 매주 동시통역의 도움을 받아 주일3부·4부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새가족 등록실로 와서 함께 '새가족성경통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어 공부도 되고 교회 사람들이 모두 잘 해 줘서 좋다고 합니다.

이전에 교회에는 다녔었나요? 두 친구 모두 중국에서 교회에 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동시통역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성경과 찬송가 찾는 것을 어려워해서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찬송을 찾아 줍니다.

중국으로 언제 돌아가며 계속 교회에 다닐 건가요? 아직 대학 1학년이라 더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돌아갈 생각인 것 같아요. 돌아가서도 계속 교회에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섬기시나요? 토요일에 대학부에 나가는 친구들은 대학부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고 잘 다녔는지 대학부 친구들에게 물어 보곤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보통 주중에 전화나 문자에 시지를 보내는데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전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몇 시에 가겠다고 답 문자를 보내줍니다. 보통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난 후 새가족 등록실로 와서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많이 통하지 않아서 주로 종이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적으면서 공부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이 영문들을 만난 선생님은 이들을 만나러 직접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주중에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묻고, 주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으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영문을 향한 인도자의 열심과 성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외사 소통에 불편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써서 말해요"라며 단어들이 배껴진 종이를 내보이었다. 이러한 새가족 등록실 선생님의 성심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이 아닌 영문을 향한 사랑과 헌신만으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두 명의 아들을 얻었다며 웃음을 지으시는 선생님을 통해 전도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끊임없는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가족 등록실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를 퍼져 나가길 기도한다.

취재 | 한병아 기자

##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지난 주말에 저희 가정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보다 더 작은 일로도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믿음이 나약한 저는 다음 날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그일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에게 정말 구원의 사다리 같은 한 줄기 빛으로 역사했습니다. 아베스카 간구했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의 기도가 정말 저의 절박한 심정과 너무 흡사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거짓말 같이 마음이 평안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러면 정말 저 같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도, 평안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어리석고 나약한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담합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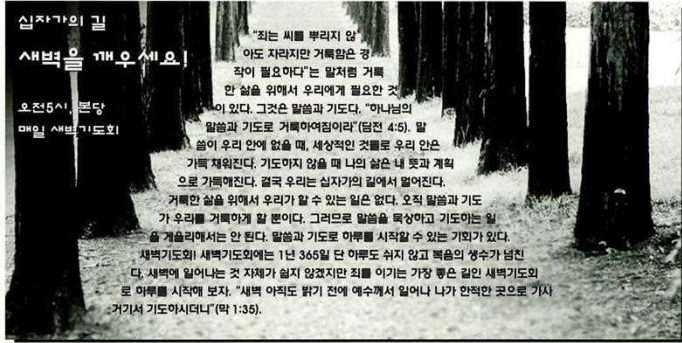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양육부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마치고 선생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고,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거의 뜬눈으로 지새웠던 전날 밤파를 다르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오후에 우려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임 없이 맡기며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 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성도, 새가족양육부)

##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407 | 김 현 | 13 | 청년2부 | 최현구(13) |
| 408 | 이임숙 | 24 | 청년3부 | 최영초(23) |
| 409 | 정유경 | 7  | 유치부  | 정금영(16) |
| 410 | 이영도 | 22 | 청년2부 | 이미숙(22) |
| 411 | 류병국 | 2  | 청년1부 |         |
| 412 | 송창록 | 23 | 청년1부 | 김재순(8)  |
| 413 | 신현도 | 2  | 유치부  | 송은화(1)  |
| 414 | 반승영 | 1  | 대학부  |         |
| 415 | 신영관 | 21 | 청년2부 | 남중호(17) |
| 416 | 이지훈 | 23 | 초등1부 | 권진숙(6)  |
| 417 | 김성현 | 8  | 청년2부 | 김중수(8)  |
| 418 | 김지현 | 8  | 청년2부 | 김중수(8)  |
| 419 | 박한조 | 5  | 청년2부 | 최현구(20) |
| 420 | 홍희주 | 24 | 청년1부 | 김중호(27) |
| 421 | 노화  | 25 | 유치부  | 박경숙(7)  |
| 422 | 김지우 | 24 | 청년1부 | 권영주(20) |
| 423 | 강운자 | 16 | 청년3부 | 이선지(11) |
| 424 | 홍은진 | 23 | 대학부  | 안연식(18) |
| 425 | 조옥순 | 18 | 소망부  | 현필순(5)  |
| 426 | 김영호 | 15 | 청년1부 | 윤서구(19) |
| 427 | 송영경 | 2  | 청년1부 |         |
| 428 | 송한나 | 2  | 청년1부 |         |
| 429 | 최원창 | 16 | 중등부  | 박혜순(16) |

\* 후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심자의 길

## 새벽을 깨우세요!

오전 5시, 본당  
매일 새벽기도회

"죄는 씨를 뿌리지 않  
아도 자라지만 거둬들이는 경  
작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거둬  
안 씨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아니냐  
말씀과 기도로 거둬들이자라"(골3:45). 말  
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생한 것들로 우리  
기쁨 채워진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은 더 험하고  
어둡게 된다. 결국 우리는 심자의 길에서 멀어진다.  
거둬안 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 우리를 거둬들이 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새벽기도와 새벽기도회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의 생수가 넘친  
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인 새벽기도회  
로 마음을 시작해 보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만민을 곳으로 가시'  
'가서 기도하이다니'(막 1:35).



